

朝鮮總督府總政の記録  
 (조선총독부 총정의 기록)

이 기록은 당시 조선총독부 ~~의~~ 비서관 겸 총무  
 과장이었던 山名酒喜男 (야마나 미키오) 씨가  
 1945년 11월에 귀국하여 본국정부 보고용으로  
 작성한 것인데 그해 12월 24일까지 랑고했다  
 씨는 <sup>일본의</sup> 敗戦 (패전) 하자 總督 (총독) 과 政務總  
 監 (정부총감) 을 도와 미군정 마쓰로의 사무인  
 직을 비롯한 일본국민의 본국 귀환 업무 등 수

일본에서  
 해방이 될 것을  
 예상한 뒤의  
 기록이다

많은 일을 처리 하면서 미군과의 사이에  
통역까지 한 사람이다

씨는 廣島縣 (히로시마현) 출신으로 1929년  
의 東京帝國大學 (도쿄 제국대학) 의 법학부를  
졸업 하 ~~자~~ 조선 총독부 <sup>에서 근무했다</sup> ~~외무~~ 1936년까지  
~~는 관세과장을 지냈고 이어 해무과장, 가~~  
~~관세과장 및 문외과장 등을 역임했다~~ <sup>일본으로 귀국한</sup>  
후는 外務省 (외무성) 북방과장과 會計  
檢査院 (회계 감사원) 의 제3과장. 이 사무차관  
등 2년 ~~간~~ 1955년에 퇴임 했다

16

9

이 보고서는 환판에 관한 등사판인데

총 230쪽에 달한다

이 보고서에 따르면 8월 15일에 해방

이 되자 9월 7일에 <sup>오류</sup> ~~美軍~~ (미군)이 서울에 진

주 하였다 이어 9월 9일 <sup>오류</sup> ~~총독부~~ (구 중앙청) 제

1 회의 상에서 <sup>도무(가미쓰기)</sup> ~~항하리 중랑~~ 과 ~~조선군 사령관~~.

<sup>오류</sup> ~~조선 총독~~ 및 ~~시모~~ (야마구찌) 진해 경비부 사령관

차아에 등이 항복 문서기 조인 서명 했다

조인식이 끝나자 오후 4시 20분에는 조선

총독부 정문 국기 게양 램에 잇리 ~~日章旗~~ (일장기)

는 미국의 星條旗 (성조기) 를 바꾸었고 이날  
 자른 京仁 地은 (경인지구) 의 일본군은 철수했  
 다 09월7일 미국 진주에 앞서 9월6일  
 미국의 제24사단의 하리스 准將 이 비행기 편  
 으로 와서 7일 밤 정무총감 (부총독) 에게  
 함복 조인서 이 있을 때 까지 총독에게  
 경례 권유 인정 하는 보고인용 했었다  
 이 보고위에 따르면 <sup>국도의</sup> 혼란기를 맞은 08.15~08.25일

가리의 不詳事 (불상사) . 통제를 보면 일본인들에  
 대한 것은 즉 소수인들에 반해 조선인의 정향은

과 유면 서기 등이 화를 입은 것이 더 많다

이 군정은 태전국의 총독과 정무총감  
을 前崔禮遇 (전관 애우) 해서 이들을 두사관  
은 이 군용기 불린 일본까지 호송하는 친절  
을 배물기 드 했다 .

한편 만주 (중국의 동북 3성) 와 북조선 맛  
조선에 있던 일본인들이 일본으로 돌아  
가기 위해 부산항으로 ~~귀환~~<sup>해당</sup> 하기 시작 했다

부산항은 당시 2만 명이 넘는 귀환자가 집결  
함으로써 숙박 시설 등 에 큰 혼란이 생겼다

당시 조선에는 80만명의 일본인이 살고 있었는데 북  
 선에 25만 남선에는 55만명이 있었는데 여기에  
 만주 거주 일인리 廣東軍(관동군)이 겹쳐 수송에는  
 일대 호란 <sup>을 빚었다</sup> ~~이 있었다~~ 10월 24일 해례 일본인 귀환자  
 는 17만 3천이 있었고 조선인 귀환<sup>중</sup>자는 15만 7천인이었다

한편 해례는 8.15 ~ 9.28일까지 조선 은행의  
 화폐 발행 총액이 36억 원(圓)이었고 9.28일 하루  
 에 발행 교가 86억 5,800만 원(圓)이었다 <sup>1944년</sup> 당시 조  
 선 총독부 예산이 23억 원 이었다는 것을 상기 하면

사실 얼마어마한 금액이 아보수 없다 이것은 해방 직후 그 당시 무시했던  
 인물들의 <sup>10x20</sup> 권이이기도 했다 사실은 이에 의해 총독부는 ~~사~~ 해방 6개월 전부터 해방을 감리하러  
 나간 많은 공작자들에게서 미리 퇴직금을 주어 분국으로 귀환시킬 때 도 막대한 돈을 찍어내었다

10x20